

지역 소식통

익산시, 관광도시 발전방향 찾기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익산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공감하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익산관광마스터플랜수립용역과 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한 관광활성화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민·관·학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관광도시 정책을 수립하여 '관광도시 원년'을 선포하고 나아가 매력적인 관광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설문내용은 익산시를 대표하는 이미지 향후 익산시 관광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등 익산 관광도시 발전방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방법은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과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익산=중앙원기자

익산시 여성 간부공무원 A방역 격무부서 위문

익산시 이지영 부시장은 최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6명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축산과와 6초소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AI 발생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 24시간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피곤에 지친 현장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처럼 부시장은 "AI 철물방역으로 수개월간 고생한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며 "전제적 방역활동에도 최근 AI가 발생되어 안타깝지만 AI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중앙원기자

익산경찰, 신학기 교통안전 캠페인

익산경찰서는 6일 모현초등학교 앞에서 교통경찰과 중앙지구대 생활안전협회, 시민경찰, 익산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협력단체 70여명이 참석한 신학기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신학기 개학철을 맞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법규위반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 된 것으로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주었다.

노경우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 및 교통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중앙원기자

군산시, 환경부 인증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추진

예산 1억500만원 투입... 사업 대상자 22일까지 신청·접수

군산시가 대기질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인증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녹스 버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연소 시 산소, 온도, 시간 등을 조절해 연료효율을 증대시켜 연료비와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여준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와 건조시설의 일반버

너가 해당된다.

단,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규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 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산 1억5000만 원을 투입, 사업 대상자를 모집 후 질 소산화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 지원 금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최대 400만 원(0.3t/h)에서 최대 1,420만

원(10t/h이상)까지 차등 지원된다.

사업자가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을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기획환경계(☎454-339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억5000만 원을 지원해 42개 사업장에 대해 친환경 저녹스 버너 60대를 교체 지원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병원, 개원 16주년 기념 CI선포식

익산병원(병원장 이준)은 최근 병원 연수관에서 개원 16주년 기념식 및 새로운 CI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3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하는 소화기내과 김동, 이웅기 과장, 순환기내과 전영도 과장, 정형외과 백종석 과장, 치과 최보은 과장, 응급의학과 송요선 이영 재, 김영용, 방송재 과장의 임명장 수여식과 지난 10년 동안 병원을 위해 열심히 일 해 주신

장기근속자 표창에 이어 2016년도 모범이 된 우수직원 표창이 있었다.

또한 새로운 CI선포식과 2017년 신규직원 소개에 이어 마지막으로 16주년을 기념한 떡케익 커팅식으로 행사를 마쳤다.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원내 입원환자 및 내원객들에게 따뜻한 대추차와 개원 16주년 기념 선물을 제공했다.

/익산=중앙원기자

원광대, 생명평화리더십 공개 교양강좌 개설

6월까지 매주 금요일 학생·시민 대상 공개강좌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종합대학으로서 한국사회와 아시아 및 세계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고민하고 대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양과목으로 '생명평화리더십(아시아공동체론)' 강좌를 개설했다.

일본 '원아시아재단'이 후원하고, 원불교학과 박광수(원광대 종교문제 연구소장) 교수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생명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문명을 구축해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주제별로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최고의 강연이 되도록 구성했다.

강좌는 3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원광대 교학대학 4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며, 학생과 시민에게 공개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생명평화리더십(아시아공동체론) 강좌는 생명과 평화를 합한 '생명평화학'을 제창하고, 그 근원을 동아시아의 전통사상으로부터 추출하고자 하며, 학(學)이라고 하는 말을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보다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도(道)'로 파악해 생명과 평화를 실천하는 '도'를 학생들과 함께 탐구하며 그것이 리더십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4월에 걸쳐 진행되는 공개강좌는 평화(전반)와 생명(후반)으로 나눠 전반부인 평화 부분은 박광수(종교학) 교수의 아시아 공동체론과 문명

전환시대의 평화실현과제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원광대 김도중 총장이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구상과 실천'을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선다.

또한, 정준곤(일본 원아시아재단) 박사, 신현승(상지대/한국 신유학), 진준(중국 절강공상대학/중국 신유학), 조은수(서울대/불교학) 명예교수 등 이 아시아의 평화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강의를 참여한다.

이어 후반부인 생명 부분에서는 이시형(의학) 힐리언스선마을 총장과 기타자마 기신(아프리카학) 명예교수, 도법(불교 조계종 실상사) 주지스님, 제이슨 버치(영국 옥스퍼드대/인도 요가학) 교수, 김성관(종교학) 원광대 석좌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상과 실천 문제를 합해 생명 영성의 담론을 제시한다.

/익산=중앙원기자

군산시, 국가암검진·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군산시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및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암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무료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중 ▲위암과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이 해당 된다.

대상자는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산시 암 검진기관은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한국병원, 차병원, 누가병원, 미듬내과, 속편

한내과, 동서의원 등 32개소가 있다.

무료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료비의 일부를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 가능한 질병으로 가까운 검진 지정기관을 방문해 암 검진을 꼭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460-326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암 환자 308명에게 총 4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 의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 질환

군산시보건소(소장 전영태)가 비용의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사업비 3억 원(기금50%, 도비10%, 시비40%)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만성 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

한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가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단,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평가기준은 기준중위소득 즉, 소득기준 120%(4인 가구 기준 월 536,1856 원)와 재산기준 300%를 일반기준이며, 혈우병·고셔병·파브리병·유

코다당증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60%(4인 가구 기준 월 714만7808 원)와 재산기준 1000%를 평가기준으로 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3개월 이내 희귀난치로 확인 받은 진단서(133종),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입대차계약서(해당자),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내원하여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정신건강계(☎460-320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 지원 협약 체결

가정 해체로 인한 어린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발발고 나섰다.

6일 문동신 군산시장, 박종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신유자 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장은 군산시청 면담실에서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의무상담제 안내와 홍보, 기본상담 예산 지원, 법률상담위

원은 의무상담제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 군산시는 기관 간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심화상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부모들의 노력의 이혼의 속도를 조절하여 어린이 행복도시의 근간인 가족이 해체 되지 않도록 위기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